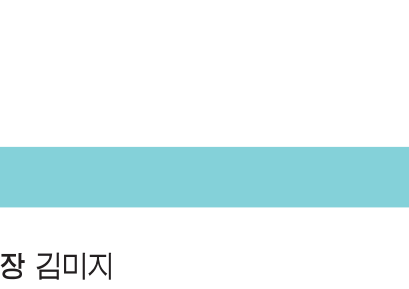
세상을 보는 송호인의 눈

발행인 이기평 | 주간교수 이은경 | 편집장 김미지
주소 225-704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남산로 210 송호대학교
이메일 songhonews@songho.ac.kr
홈페이지 www.songho.ac.kr
2015년 6월 10일 수요일 | 8호

송호신문 창窓

축제, 대동제가 열리다


총학생회에서 준비한 게임을 진행하고 있다.



장기자랑 1등 팀이 수상소감을 전하고 있다.



정소 아주머니들께서 학생들을 위해 전을 메뉴로 한 부스를 운영하시는 모습이다.


각 과마다 부스를 준비하여 운영하는 모습이다.


댄스팀 스위치의 공연으로 축제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다이나믹 듀오'의 공연을 즐기고 있다.

지난 5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우리대학교 축제 '대동제'가 열렸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대동제는 따스한 봄볕 아래 우리대학교 교수, 교직원, 학생 등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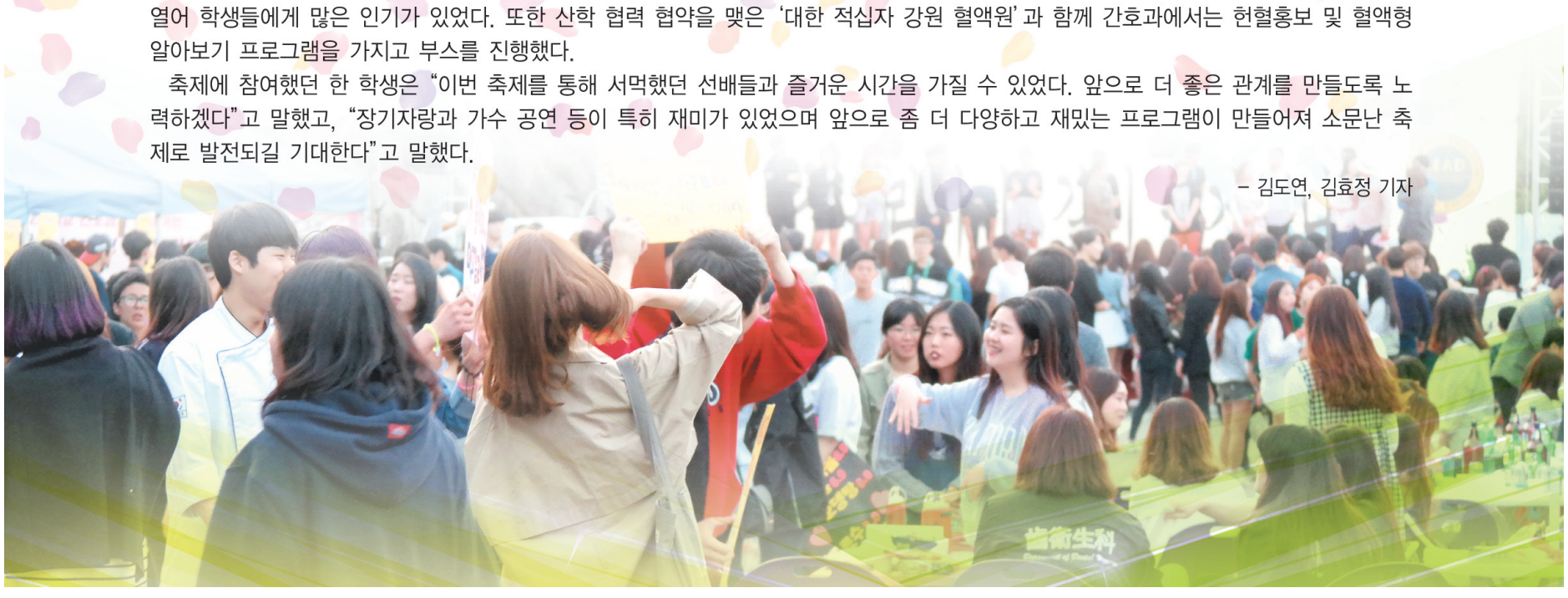
13일 오후 3시 각 과별로 본격적인 축제가 펼쳐졌다. 먼저 개회식, 게임, 개인 및 단체 장기자랑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장기자랑은 치열한 예선전을 거쳐 통과된 팀들이 자신들의 끼를 마음껏 발산하였다. 장기자랑 다음으로 인기 있었던 것은 댄스팀 '스위치'의 공연으로 축제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하였다.

14일에도 흥미롭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펼쳐졌다. 'NCS 쏭 페스티벌', '총학생회를 잡아라'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최고의 힙팝 가수인 '다이나믹 듀오'의 공연이 시작되었을 때 학생들은 열광적으로 축제를 즐겼으며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춤추고 노래하는 장에서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축제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이번 축제에서는 작년과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었다. 특히 학교 청소를 담당하는 아주머니들께서 저렴하고 맛있는 전을 메뉴로 주점을 열어 학생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었다. 또한 산학 협력 협약을 맺은 '대한 적십자 강원 혈액원'과 함께 간호과에서는 헌혈홍보 및 혈액형 알아보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부스를 진행했다.

축제에 참여했던 한 학생은 "이번 축제를 통해 서먹했던 선배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앞으로 더 좋은 관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장기자랑과 가수 공연 등이 특히 재미가 있었으며 앞으로 좀 더 다양하고 재밌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소문난 축제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도연, 김효정 기자



‘총장배 NCS SONG Festival 경연대회’ 개최

‘NCS SONG’,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돼



◇총장배 NCS SONG Festival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한 간호과 학생들의 공연 모습이다.

지난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열린 대동제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총장배 NCS SONG FESTIVAL 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NCS SONG’이란 현재 취업시장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대학교육의 근간이 NCS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노랫말로 만든 것이다.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 그동안 먹거리장터행사와 대중문화공연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축제문화가 NCS를 주제로 한 노래와 춤의 경연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축제문화를 조성하게 되었다.

이번 첫 경연대회는 7개 팀이 “NCS SONG”(작사 김록환, 작곡 안치행, 노래 김록한)의 원곡 또는 편곡을 준비하여 참가하였으며, 원곡의 작사자이며 가수인 김록환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지사장이 직접 대회심사위원장을 맡았다. 대회결과, 최우수상 간호과 팀, 우수상 사회복지과 팀 그리고 심사위원장 특별상으로 치위생과 팀이 선정되었다.

이번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박유진(사회복지과1)학생은 “이번 경연대회 준비를 위해 “NCS SONG”을 거듭 불러보면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김미지 기자

호텔외식조리과, 2015 한국음식관광박람회 한국국제요리경연대회 금상 수상



◇호텔외식조리과 학생들이 2015 한국음식관광박람회 한국국제요리경연대회에 참가하여 금상을 수상하고 찍은 단체사진이다.

호텔외식조리과가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5 한국음식관광박람회 한국국제요리경연대회’ 라이브요리(주니어팀) 경연에 출전하여 금상 2개, 은상 1개를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한국전통음식을 비롯해 현대화되고 특색 있는 음식 전시로 한국 음식문화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개최한 행사이다.

본 경연에서 A팀(김민지 외 5명)은 ‘광어그라브락스와 앤초비 데판냐드’를 메인으로 한 2개의 요리를 선보여 금상을 수상했다. B팀(최언관 외 5명)도 ‘레몬커드와 과일마말레드를 곁들인 즉석 훈제연어구이’외 2개의 요리로 금상을 받았으며, C팀(조성우 외 5명)은 ‘망고크림과 케모마일 폼 깻잎오일에 구운 관자’외 2개의 요리를 선보여 은상을 수상했다.

금상을 수상한 A팀 팀장 김민지(호텔외식조리과 1)는 “학과 수업이 끝난 후에 계속 학교에 남아서 교수님과 연습을 했다. 너무 힘들어서 중간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대회 참가하고 바로 상을 받으니 뿌듯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미지 기자

어린이날 행사



◇행사에 참여한 유아들의 만들기를 도와주고 있다.

지난 5월 4일부터 5일까지 횡성종합운동장에서 어린이날 행사가 개최되었다. 우리대학교 유아교육과, 사회복지과, 치위생과 등 여러 학과 학생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행사는 홍보체험관, 동아리공연, 어린이 전문 공연, 연계행사, 평생학습동아리 공연, 가족놀이마당, 매직버블쇼 등 다양한 공연과 청소년 어울림마당, 어린이공연 ‘타요씽씽극’, 휘호대회, 횡성문화골든벨, 주민자치경연대회, 어린이 놀이마당, 먹거리마당, 전시행사 등 부모님과 어린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행사들이 준비되었다.

특히 우리대학교 학생들은 각 과마다 각 부스를 맡아 과의 특성을 살리는 활동을 하였다. 유아교육과는 탬버린 꾸미기, 나무모양 칠하기 등 부스활동을 진행했으며 에어 부스 안내를 맡아 봉사했다. 치위생과에서는 치아 본뜨기와 충치 예방 교육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각 지역에서 많은 가족들이 참여하여 행사는 활기를 띄었다. 행사에서 봉사를 한 유아교육과 학생은 “덥고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다. 이 시간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았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한솔 기자

야식마차, 이번엔 아침마차도 열어



◇총학생회 임원들이 준비한 야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지난 4월 22일 송호관 1층 카페 ‘그라찌에’에서 3번째 마차를 진행하였다.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아침마차, 기숙사생들을 위한 저녁마차를 나눠 행사를 하였다. 메뉴는 아이스티, 아메리카노, 에이드&커피머핀, 초코머핀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메뉴로 전달했다.

총학생회 임원들은 “시험 잘 보세요!”라는 이야기를 하며 학생들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기말고사 기간에는 CU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메뉴는 미정이다. 총학생회 임원은 “더욱 학업에 충실한 송호대학교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기며 제3회 야식마차를 접었다.

김효정 기자

관광(대명)리조트과 멘토링 체결 서약식



◇관광(대명)리조트과 학생들이 멘티, 멘토 체결을 진행하는 모습이다.

관광(대명)리조트과가 지난 3월 19일 오후 창조관 식음료 실습실에서 15학번(과대표 한희수 외 43명)과 14학번(과대표 김혜선 외 38명)의 제3회 멘토링 체결 서약식을 가졌다.

이 체결식에서 학생들은 학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열성을 다함과 동시에 멘토·멘티로서의 역할과 올바른 대학문화 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였다.

관광(대명)리조트과의 멘토링 체결 서약식은 2학년과 1학년이 1:1로 멘토 멘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추후 멘티로 활동한 1학년은 2학년으로 진급하며 다음 신입생들의 멘토가 된다. 이러한 멘토링 체결은 졸업후 학과 학생들이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김한솔 기자

"우리 취업 했어요"

학생들이 만족한 취업캠프

지난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우리대학교 취업지원실에서 주최하고 노동연수원에서 주관하여 취업캠프를 진행하였다. 이번 취업캠프에 참여한 학과는 호텔외식조리과였다.

프로그램은 전국 대학생 등 예비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가치관 정립과 진로설정,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다. 대상 학과의 정체성이 분명하여 만족도가 떨어질 것으로 우려한 것과 달리 학생들의 반응은 좋았다.

교육 후 설문조사 결과에서 5점 만점 중 평균 4.48로 높은 점수가 나왔다. 교육과정부문 평가에서는 평균 4.36을 교육환경부문 평가에서는 평균 4.69를 강사부문 평가에서는 평균 4.54의 점수를 받았다.

프로그램을 진행한 강사들은 "타 학교에 비해 학생들이 성실하고 집중도가 높았다. 그로 인해 프로그램의 진행이 수월했으며 학생들도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번 취업캠프가 우려와는 달리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사전에 자신의 이력서를 완성하여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점은 이번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아쉬움을 주었다. 또한 사전에 자신의 이력서를 완성하여 입사원서 작성 프로그램 시간을 통해 수정·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취업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의 단체사진이다.



◇취업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모습이다.

글로벌 호텔외식조리과, 해외취업 성공

지난 2014년 2월에 졸업한 3명의 호텔외식조리과 학생이 해외취업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대학에 전하며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 이들은 각각 체코 대한민국대사관 관저요리사(임형준), 독일소재 한식당 요리사(정동호, 김용석)로 취업했으며, 세명의 학생 모두 졸업 후 1년동안 인턴과정을 거쳐 정직원으로 선발되었다.

이들의 해외취업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취업을 위하여 학업에 매진하는 재학생들은 취업시장에 대한 시야가 넓어졌고, 취업에 대한 도전의지가 생겼다며 선배들의 취업성공 소식에 기쁨을 함께 했다.

체코 대한민국대사관 취업에 성공한 임형준 학생은 "취업 준비기간동안 불철주야 애써주셨던 교수님들께 감사하다. 재학중에 참가했던 대회와 레스토랑실무수업 등이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호텔외식조리과 학과장 정삼식 교수는 "올해 해외에서 들려온 졸업생들의 취업성공 소식이 현재 재학생들의 취업의지를 북돋는 계기가 되었다. 해외 취업한 졸업생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학과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
횡성군 농업경영 최고사관(CEO) 과정 운영



◇횡성군농업경영 최고사관(CEO)과정 입학식 단체사진 모습이다.

우리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김나영 교수)에서는 횡성군 농업기술센터와 농업경영 최고 사관(CEO) 양성을 위한 위수탁 교육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농촌지역의 21세기형 지역혁신리더로서의 역할과 자세 확립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횡성지역의 농촌 최고 지역리더로서의 역량 강화, 리더십 함양과 농업 전문경영인 양성을 위한 최고 사관(CEO)과정 운영, 농업농촌지역 발전과 가치 창출을 위한 현장중심의 농업전문성 향상과 지성을 겸비한 지역혁신리더 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교육목표로는 창조적 가치 창출을 위한 횡성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을 목표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본 교육과정은 1·2학기로 구분한 학기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방식은 주 1회 교육과 학기당 20회, 년간 총 40회 120시간의 교육으로 운영하고 있다. 분야별 전문강사 초빙을 통한 강의와 질의응답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우수 농촌지역의 발전 사례 발굴 및 벤치마킹을 위하여 학기당 1회 총 2회의 농촌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우리대학교 관광(대명)리조트과의 채용식 교수가 맡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운영 및 행정지원은 평생교육원이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외 참여하는 전문강사로는 SNPG의 양수영 책임연구원, 공주대학교 문영주 교수, 윤선마케팅연구소의 윤선 대표, 빅팜컴퍼니(주) 안은금주 대표, 송호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 김나영 교수 등 20여명의 농업분야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교육생 대부분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지역리더로서 농촌이 매우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매주 90%의 출석률을 보이고 있으며, 교육생들의 연령은 38세부터 70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보이고 있다. 지역리더 역할 및 마을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열정과 학구열이 매우 우수하고 높은 수준이다.

평생교육원이 이러한 사업과 더불어 평생직업교육대학(학장 임용광 교수)에서는 횡성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CS Leaders(관리사) 과정"도 운영하고 있으며 총 4기 중 2기가 교육운영 중에 있으며, 1기 교육생들의 경우 국가공인 자격시험에 38명이 응시하여 100% 합격하는 쾌거를 거둠으로써 횡성군 공직자의 서비스 마인드 고취로 인한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월호, 1주기 노란리본 가슴에 담아…



지난 4월 16일 총학생회에서는 세월호 사고 1주기를 맞아 노란리본 달기 추모행사를 마련했다.

총학생회는 직접 노란리본을 만들어 각 학과 과대표에게 전달하여 학생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했다. 리본은 총학생회 임원들과 과대표들은 큰 리본, 학생들은 기본 리본으로 정하여 왼쪽 가슴에 달 수 있게 핀 형식으로 제작했다.

총학생회에서는 "이번 행사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영원히 기억한다는 의미로 노란리본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추모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프다"라고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김효정 기자

동문탐방 관광경영학 박 광 진 동문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바르게살기운동 횡성군협의회장을 맡고 있으며, 건설업 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도 일부 임원으로 직책을 맡아 일을 하고 있고, 재산관리 쪽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대학교 입학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한우를 알리기 위한 홍보대사 일을 맡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홍보대사의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송호대학교 관광경영학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에 대학교가 생기면서 횡성군하고 산업 쪽 협조관계 및 지역발전에 동호모임 연관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생활은 어떠셨나요?

학교 생활하는데 있어서 학생회장도 하는 등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더 나아가 후배들도 지도했습니다. 저는 야간강의를 들었는데 대부분 같이 듣던 학생들이 나이가 많았어요. 당시에 제가 이 지역의 농협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역의 동문, 인간관계의 맺음에 대해 매우 높게 평가가 되었지요. 또, 오래전에 배워 잊어버렸던 내용들을 되새기고 심화된 내용을 배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약간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과목외에 사회전반에 걸친 교양과목들이 많이 개설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송호대학교란?

지역의 대학교가 생긴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횡성에 꼭 필요한 대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횡성 군민들에게 배움의 기회가 늘어남으로써 개개인 자신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정말로 열심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전문대라는 생각을 떨치고 내가 낸 학비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호대에서 무언가를 많이 얻어가야지 하는 욕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솔 기자



◇박광진 동문의 바르게살기운동 횡성군협의회장 취임식 모습이다.(사진의 왼쪽)

송호대를 함께 다니는 가족을 찾아서!

우리대학교에는 한 캠퍼스에서 같이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다. 대학을 함께 다니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인데 매일 집에서 보던 형제자매를 캠퍼스에서 마주치면 어떤 마음이 들까? 송호신문기자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대학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에게 형제장학금 30%를 적용한 혜택을 주고 있다.

▶ 이채원(보건행정과2) / 이박원(호텔외식조리과2)



이 채 원



이 박 원

Q : 우리대학교를 오게된 계기

언니는 우리대학교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어린이집 교사로 계시고, 오빠는 호텔외식조리과 2학년에 재학 중 입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송호대학교에 관심이 많았어요. 언니와 오빠가 다니니까 왠지 낯설게 느껴지지 않고 친근한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건행정과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오빠와 함께 즐겁게 다니고 있습니다.

Q : 좋은 점

입학할 때 호텔외식조리과 교수님과 안면이 있어 교수님께서 학교건물 위치나 학교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 점이 좋았어요. 그리고 오빠와 함께 학교를 다니니까 서로 지각할 일은 없어요. 제가 늦잠을 자면 오빠가 저를 깨워주고, 오빠가 늦잠 자면 제가 오빠를 깨워줍니다. 서로 고민거리도 이야기 하고요.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됩니다.

Q : 하고 싶은 말

오빠와 제가 서로 원하는 곳에 취업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요. 오빠가 호텔외식조리과니까 집에서도 맛있는 음식 많이 만들어주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빠를 배려하고 서로 사이좋게 더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곳에 취업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김효정 기자

▶ 윤근아(유아교육과3) / 윤유진(유아교육과3)



윤 근 아



윤 유 진

윤근아 : 우선 등록금이 다른 학교보다 저렴하고 형제장학금이 있어서 이 학교에 등록하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아침, 저녁으로 통학하는 거리가 멀어서 시간이 많이 소비되고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어서 불편함은 있지만 교수님들께서 저희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생과 같이 다니니까 우선 재미있고 과제나 시험공부도 서로 상의도 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함께 다니니까 서로 의지도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윤유진 : 원주권에 유아교육과가 있는 대학을 찾던 중에 송호대학으로 오게 되었어요. 송호대학은 형제·자매장학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게 되었죠. 학교 다니면서 과제도 같이 하고 수업도 같이 들어서 너무 의지되고 좋아요. 그리고 학교 다니기 힘들 때, 고민 같은 것도 서로 허심탄회하게 털어놔도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은 거 같아요.

김한솔 기자

▶ 박유림(사회복지과2) / 박유진(사회복지과1)



박 유 림



박 유 진

박유림 : 대학에 입학하면서 제일 걱정한 부분은 학교를 다니면서 적응을 잘 할 수 있는지 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생도 같은 고민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같은 학교, 같은 과에 입학을 하게 되어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줄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또, 작년에는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면 외롭고 쓸쓸하게 집에 왔는데 이제는 동생과 함께 버스를 타고 집에 갈 수 있어 그런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둘이서 이런 저런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박유진 : 처음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고등학교 생활이랑 너무 달라서 겁이 났는데 지금은 재미있습니다. 같이 대학을 다니니까 일단 든든하고 정서가 안정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누구보다도 적응이 쉽고 빨라서 좋았습니다. 저희 자매는 진로에 대해 생각을 같이하고 계획을 같이 세우며 자라왔습니다. 때문에 학교생활 중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원인을 함께 생각하고 해결하여 같은 길로 계속 갈 수 있어 좋습니다.

김도연 기자

새로 오신 조교님

임상병리과와 유아교육과에 새로 오신 조교님이 계신다. 항상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뒤에서 학과의 필요한 부분을 위해 일하시는 조교님. 새로운 일을 배우시느라 바쁘지만 웃는 얼굴로 학생들과 소통하려 노력하는 조교님들을 만나보았다.

임상병리과 학생에서 조교 선생님으로 오신 이은지 선생님!



- 조교를 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이번 조교 채용 공고를 보고 학교 다닐 때 과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고 학생들을 잘 챙겨주셨던 조교님이 떠올랐어요. 아직까지 기억에 인상 깊게 남아있는 걸 느끼고 저도 이번 기회에 임상병리과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배려하여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좋은 인연을 만들어보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좌우명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 입니다. 제가 맡은 모든 일에서 최선을 다하다보면 결과가 비록 좋지 않아도 해나가는 과정에서 배우는 점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새기고 있는 좌우명입니다.

-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무엇보다 중요한건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학점관리, 토익점수 등 자기개발을 위해 배우고, 취득하며 대학 다닐 때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다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르바이트나 여행을 다니며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가지세요!

- 앞으로의 다짐과 목표

조교 일이 처음이기 때문에 완벽하게는 못하겠지만 열심히 하려고 부지런히 노력할거예요. 교수님들 곁에서 지켜보고 알아가면서 학생들의 편의와 교수님들의 수업과 업무를 보조하면서 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유아교육과의 새로운 얼굴 박장원 조교



- 조교를 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본교 사회복지과 졸업생이었습니다. 졸업 후에 사회복지과 강윤경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셔서 유아교육과 조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 조교를 하시기 전 무슨 일을 하셨나요?

안 해 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로 열심히 바쁘게 살았습니다. 학교를 오기 전에는 삼성건설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더 공부를 하고 싶어 우리대학교 사회복지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일을 빠른 시간 내에 적응하는 타입이라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

학생들과 친해 질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싶어요. 아직 학과의 일을 배우는 단계여서 알아가느라 바빠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도 노력을 많이 할테니 학생들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주세요.

- 앞으로의 다짐과 목표

항상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과의 일을 열심히 배워 교수님들과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친구처럼 학생들과 스스럼없는 조교가 되고 싶습니다.

김효정 기자

교·수·칼·럼

자신을 위해 발버둥치자!



채 용 식 교수
(관광(대명)리조트과)

만화방창, 백화제방의 시절을 뒤로 한 채 연초록이 진초록으로 바뀌는 녹음방초의 여름이 열리고 있는 계절의 여왕 5월! 이 호시절에 피 끓는 젊은이들의 분명한 목표의식과 자기계발에 대한 강한 바람이 일렁이는 것은 나의 과거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현재라는 렌즈를 통해 응시하고자하는 내면의 발버둥은 아닐까? 5월은 행사와 기록의 달이며, 1년 중 가장 분주한 시간으로 거침없이 엄습하며 빠른 걸음을 재촉한다. 5월은 1년 중 허리부분에 해당되는 시점이라 시간관리가 허술하면 1년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다시 말해 5월을 너무 분주한 일상으로 몰아넣거나 탐닉하게끔 방치하게 되면, 양면의 칼처럼 얻는 혜택도 있겠지만 잘못하면 덧없는 시간으로 산화되어 꽤나 후회되는 일을 만들기도 한다. 나 역시 그런 5월을 보낸지라…….

교수생활 20년에 접어들면서 5월이 오면 늘 생각나는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 1년 중 한가운데, 역동적이며, 에너지 발산이 넘치는 계절이지만 냉철함과 이성적인 시간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이다. 그래서 나는 늘 5월을 성공의 디딤돌을 만드는 중간 점검의 단계로 인식하고, 연초에 세웠던 한해의 계획들이 어떻게 추진되어 오고 있는지? 일련의 과정을 꼼꼼히 되짚어보고, 목표를 향해 분연히 일어서도록 자신을 채찍질한다. 그래서 나는 시간가계부를 쓰고 있다. 내 자신을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로 여기기에 항상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추동력을 확보해 가기 위해서이다.

축구경기에서 허리를 담당하는 선수들의 역할을 보자. 허리부분이 튼실하고 정확한 패스와 강력한 수비 등 공수를 아우르는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해 낼 때, 승리의 기초가 만들어지지 않는가?

우리 인간의 삶도 이와 매우 유사하며, 특히 젊은이들의 미래를 향한 적극적인 투자와 삶의 방식도 이에 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외치고 싶다. 이 5월을 향해 표효하면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지금 여기 현재를 즐기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발버둥치자고…… 아니 인격체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자기계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신을 호되게 괴롭히라고 권하고 싶다.

5월의 아이콘은 젊음, 청춘, 패기 등이 아닌가? 그런데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과연 이런 트렌드와 조화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마음 한구석이 아려오고,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한 마음도 든다. 3포·4포·7포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꺾여진 세상? 정말 힘든 세상과 직면한 청춘? 그래서 위로의 말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가치 있는 미래를 향해 더 깊이 고민하면서 행동에 옮기는 열가마 같은 5월이 되었으면 한다. 포기를 포기시키고, 좌절을 좌절시킬 수 있는 강인하고 단단한 삶을 목놓아 외쳤으면 좋겠다. 내 삶의 주인공이 되겠다고 말이다.

또한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기답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지지 않는 삶을 살아갔으면 한다. 지지 않는 청춘을 지향하는 버팀목은 절제, 인내, 계획, 목표, 미래관리 그리고 시간관리를 충분조건으로 한다. 이케아 다이사쿠가 쓴 『지지 않는 청춘』처럼, 청춘은 뛰어넘지 못할 벽이 없지 않는가? 말이다. 아니 양창순이 주장하는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보다도 더 냉정하게 미래를 챙겼으면 좋겠다.

달콤한 인생! 아름답고 멋진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 충실하고, 자기만의 색깔, 끼, 이미지, 개성이 돋아나는 또 다른 노력과 열정이 필요하며, 더 큰 세상을 향해 당당한 모습으로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지금부터 당장 시작하자! 가슴 뛰게 하는 시나브로 일을 찾아서….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한 "같은 강물에는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다"는 뜻을 새기면서…….

학과 탐방

치위생과

치아가 건강해서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다. 우리의 소중한 치아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는 치위생과 학생들.

캠퍼스를 지나다 치위생과 학생들을 보면 항상 손에 무언가를 들고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기에 국가고시 100% 합격률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더불어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한다.

학생들의 끊이지 않는 열정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치위생과를 탐방해보았다.

■ 치위생과 소개

치위생분야의 체계적인 이론학습과 임상실습을 통해 구강질환 예방과 효율적인 구강건강관리 및 구강건강증진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치과진료 협조자이면서 구강보건교육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구강건강에 관한 포괄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치과 위생사를 배출하는 과입니다.

■ 배우는 내용

전공과목으로는 치위생의 필수적인 치면세마(scaling), X-ray촬영을 통해 치아의 구조와 치아우식증 진행단계 및 치주질환을 판단할 수 있는 방사선, 예방치학 및 환자를 교육하기 위한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구강보건교육학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임상적 기술 습득을 위한 수업으로는 충치 치료 후 금 등으로 이를 씌우는 과정 및 재료의 특성 등에 대한 내용을 배울 수 있는 치과보철학, 신경치료, 미백, 충치의 진행 단계에 따른 치료방법 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치과보존학, 치과교정학, 임상전단계실습, 치과에서 사용하는 아말감, 레진 등의 여러 가지 재료의 주의사항, 장·단점 등을 배울 수 있는 치과재료학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초과목인 치주학, 미생물 등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교양과목으로 생활영어, NCS정보능력, 취업전략 등이 있습니다.

■ 우리대학교 치위생과의 특별한 점

젊고 우수한 교수들이 열정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학생들을 유능하고 창의적인 치과 위생사로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정한 학생 수로 인한 사제지간의 화합과 애정이 우리대학교 치위생과의 장점입니다. 학생수가 많지 않아서 가족 같은 분위기를 가지고 스스럼없이 모든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치위생과에서는 국가고시 교과목 중심의 내실 있는 학과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과 자체 독서실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공부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역의료기관(보건소)과 연계하여 실무중심의 맞춤형 치위생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어린이집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노인과 유아를 대상으로 한 실무중심의 치과 위생사 교육을 하기 위해 진행중입니다. 또한 보건소와 연합하여 임산부 교육, 군부대 협약하여 군인들이 일주일 2번 방문하여 스케일링,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을 진행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 학생들에게 전하는 말

서비스정신이 투철한 창의적인 보건전문인력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생각의 보석을 지니고 있다. 다만 캐내지 않아 잠들어 있을 뿐이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고어에 의하면 치아를 보석이라 말합니다.

치위생과 학생들은 이러한 보석을 관리하고 케어하는 진정한 보석이지요. 다만 아직 모르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이 보석이 빛을 발휘하는 순간에는 누구보다 빛나고 아름다울 것이기에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미지 기자









●●● 《인문학 강좌》 연재를 시작하며 ●●●

삼성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직원 채용 시 스펙보다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뽑겠다고 한다. 폭넓은 시각과 통찰력 깊은 인재만이 통섭과 융합으로 대변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기술과 인문학의 중간에 있으며 애플의 DNA에는 기술뿐만 아니라 인문학이 녹아 있다고 강조했다. 인문학적 통찰력과 예술적 감수성에서 애플의 모든 기술이 나왔다고 단언했다. 심지어 그는 '소크라테스와 한나절을 보낼 수 있다면 애플이 가진 모든 기술을 내놓겠다'고 공언할 정도로 인문학에 자신과 애플의 모든 것을 걸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흔히 인문학을 文·史·哲로 통칭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문학을 필두로 꼽는 것은 문학이 우리의 삶과 사색을 언어로 표현한 정신적 결과물이자 인간의 감정과 정신을 순화시키고 삶의 진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오랜 기간 강단에서 문학을 가르치면서 한국의 대표적 명시들을 접하게 되었고 아름다운 시편들을 통해 고단한 인생길에서 카타르시스와 함께 위안과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이해하고, 이해하는 만큼 사랑하게 된다'는 말처럼 한국의 대표적 명시들을 찾아 함께 느껴보고 이해함으로써 이웃을 향해 열린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지길 기대해 본다.



사무국장 김 현 우
전 은광여자고등학교·
은성중학교 교장

한국의 명시(名詩) 감상(鑑賞)-1

- 詩人의 典範이 된 白石의 詩세계 -



시인 백 석

1. 들어가며

백석 신드롬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시를 좋아하고 있다. 특히 시인들을 대상으로 가장 좋아하는 시인을 물었을 때 백석을 으뜸으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동안 학교 강단에서 많이 다뤄져왔고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생명파 시인이나 청록파 시인들을 제치고 그의 시가 각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1930년대 딱 한권의 시집만을 남기고 만주로 갔다가 북에 정착한 그이기에 그의 시는 오랜 동안 대중들에게 접할 수가 없었으며 1988년 해금이 되고서야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현역 시인들이 백석의 시를 사숙(私淑)했거나 영향권에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백석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 시인으로 우선 〈농무〉로 유명한 신경림을 들 수 있겠다. 신경림은 가난하고 소외받는 기층 민중들의 생활을 외면하지 않고 매우 절절하면서도 핍진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는 백석이 시적 대상을 바라보는 따뜻하고 정감 넘치는 태도와 매우 흡사하다. 신경림은 백석의 시집 『사슴』을 처음 접하게 된 날 밤을 꼬박 새워 읽고 또 읽었고, 그 감동은 장편소설 10권을 읽은 감동보다도 컸다고 술회하고 있다.

백석보다 다섯 살 아래인 윤동주는 시집 『사슴』을 옆에 끼고 살다시피 하였고, '연탄 시인'으로 유명한 안도현도 백석을 평생 짝사랑 했다고 말하면서 백석은 그의 시가 깃들일 둥지이자 나침반이고 길잡이였다고 말한다.

2006년 한 문학지에서 '100인의 시인에게 묻다.'라는 설문을 통해 가장 좋아하는 한국의 시인을 물었을 때 백석이 1위를 차지했으며, 2012년 문학평론가들이 선정한 한국의 10대 대표시집 중에서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1위, 서정주의 『화사집』이 2위, 이어 백석의 『사슴』이 3위를 차지하게 된다. 백석시인이 1988년에야 해금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다.

2. 백석의 생애

白石은 1912년 7월 1일 평안북도 정주군 갈산면 익성동에서 태어났다. 1924년(13세) 五山學校에 입학했는데, 재학시절 오산학교의 선배 시인인 김소월을 매우 선망했었고, 문학과 불교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고 동문들은 회고한다. 오산학교 졸업 후 조선일보사 후원 장학생으로 일본 靑山學院에서 영문학을 공부했다. 귀국하여 조선일보사에 입사, 〈여성〉에서 편집을 맡게 된다. 1936년에 발표한 100부 한정판 시집 『사슴』은 당시 '문단에 던져진 포탄'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

1936년 조선일보사를 그만두고 함경남도 함흥 영생고등보통학교 영어 교사로 재직하게 된다. '모던 보이(modern boy)'라는 애칭처럼, 문단 최고의 미남으로 평가받던 백석, 그의 멋진 헤어스타일이 그의 감각을 말해준다. 그해 가을 동료교사의 송별연 자리에서 함흥권번 기생인 김진향을 만나 운명적 사랑을 하게 된다. 1938년 교사생활을 접고 경성으로 돌아온 백석은 '자야'라는 애칭으로 부르는 진향을 만나 동거에 들어간다. 그러나 기생과의 동거를 못마땅하게 여긴 부모의 강권에 따라 충북 진천에 내려가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러나 백석은 이내 자야에게로 돌아오게 되고 함께 만주로 떠날 것을 제안하지만 거절당한다.

1939년 백석은 혼자서 만주 신경으로 떠난다. 이것이 자야에게 백석과 영원한 이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1942년 백석은 만주 안동에서 잠시 세관업무를 하기도 했는데, 해방되자 북한에서 조만식선생의 사랑을 받아 눌러 앉았고 자야는 서울 대원각의 여주인이 되었다. 백석은 월북 작가가 아닌 재북 작가였다. 북한에서의 백석은 주로 러시아문학을 번역하는데 몰두했으며 여러 편의 동화시를 발표하기도 했다. 백석은 1996년 1월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밝혀졌다.

3. 원초적 고향에 대한 그리움

나는 북관(北關)에 혼자 앓아 누워서
어느 아침 의원(醫員)을 뵈이었다.
의원은 여래(如來) 같은 상을 하고 관공(關公)의 수염을 드리워서
먼 옛적 어느 나라 신선 같은데
새끼손톱 길게 돋은 손을 내어
묵묵하니 한참 맥을 짚더니
문득 물어 고향이 어데냐 한다
평안도(平安道) 정주(定州)라는 곳이라 한즉
그러면 아무개씨(氏) 고향이란다.
그러면 아무개씨(氏)를 아느냐 한즉
의원은 빙긋이 웃음을 띠고
막역지간(莫逆之間)이라며 수염을 쓸는다.
나는 아버지로 섬기는 이라 한즉
의원은 또다시 넌즈시 웃고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

– 〈고향(故鄕)〉전문 –

이 시는 1938년 《조광》에 발표했던 시로 2003년 대입 수능시험 지문으로 등장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 시를 쓸 당시 백석은 함흥의 영생고보 교사로 근무하던 중 몸이 아파 의원을 찾아간다. 맥을 짚던 의원은 백석의 말투를 듣고 고향을 물어본다. 백석이 평안도 정주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곳은 아무개 씨 고향이라고 말한다. 서사적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였고 대화 형식의 다정다감한 어조를 통해 혈육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공동체적 삶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이 시는 시적 화자가 타향인 '북관'에서 병을 앓아 '의원'을 찾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첫째 단락인 1·2행은 바로 그러한 상황7을 압축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부분으로, 외로운 타향살이를 하는 화자가 병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각별해진 향수를 느끼게 해 준다. 둘째 단락은 3·4행으로 화자가 의원을 찾아가 첫 대면한 '의원'의 풍모와 인상을 시각적 묘사로 표출하고 있다. 5행부터 15행까지의 셋째 단락은 '의원'이 화자인 '나'를 진맥하는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그 서술은 화자의 주관적 감정을 최대한 억제한 채, 진맥하는 '의원'의 행위와 표정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의원'과의 극적이고 생생한 대화를 통해 전개시키고 있다. 넷째 단락은 16·17행으로 화자의 내면세계를 보여주는 독백 부분이다. '의원'에게서 부드럽고 따스한 정을 느끼게 된 화자가 마침내 그에게서 고향과 아버지를 느끼게 되었다는 감정의 토로는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 /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는 평범한 서술로 나타나 있다. 화자의 이 같은 직접적인 감정 토로는 특별한 시적 수사 없이도 절실한 감동의 울림을 주고 있다. 그것은 셋째 단락에서 화자를 진맥하는 의원의 행위와 그와 함께 나눈 대화를 통해 그러한 정서가 충분히 환기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가 환기시키는 정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그 고향이 불러일으키는 따스한 정이다. 〈여우난 곬족〉에서는 고향을 무대로 그 곳에서 벌어지는 토속적이고 원형적인 삶의 모습을 서사적 구조를 통해 고향 정서를 보여준 데 반해, 이 시는 인물들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와 시적 상황을 압축적으로 서술하는 기법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4. 향토색 짙은 서정과 한(恨)

여승은 합장을 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덤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 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 같이 차게 울었다.

섶벌 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년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꿩도 섧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 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 〈여승(女僧)〉 전문 –

화자는 금광으로 떠난 지 10년이 지난 남편을 찾아 온 여인으로부터 옥수수를 사게 되고, 지아비를 잃고 어린 딸을 먼저 보낸 뒤 출가하게 되는 여인의 내력을 알게 된다. 화자의 서사적 진술을 통해 일제강점기 가난으로 인하여 한 가족이 해체되는 모습이 생생하게 드러나며 이를 바라보는 '나'의 서러움과 '여인'의 서러움이 절묘하게 형상화되어 있다.

백석의 시는 이처럼 한 여인의 일생을 몇 줄의 시로 그려내는 압축미와 토속적이면서도 향토색 짙은 언어로 한편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표현해내는 힘이 있다. 이 시에서도 일제강점기의 평안도 사투리를 사용하여 시를 읽는 사람들을 그 시절 그곳으로 안내한다. 한 여승의 삶의 행적을 통해 그 시대 우리민족의 삶의 한 단면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학생들의 발언대

방학동안 학교에서 취업연계, 자기개발 프로그램 개설에 관해

무엇이든 도전해 볼 수 있는 여름방학이 다가왔다. 약 3개월동안 학생들은 해야할 일과 하고싶은 일을 생각해 두었을 것이다. 누군가는 공부를, 누군가는 여행을, 누군가는 아르바이트를...

방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방학 중 취업과 연계된 프로그램이나 자신을 한 층 더 성장시켜 줄 프로그램 등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하고 바라는지 발언대를 통해 들어보았다.

임상병리과 1 김○○ : 우리대학교는 방학 중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우리대학교가 강원도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사람이나, 가까운 원주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교통편에 있어서 상당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개설된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다.

임상병리과는 아직 개설된지 얼마 안 된 과이기 때문에 다른 보건계열에 비해서 취업에 관해 다들 걱정이 많은 것 같다. 나 또한 졸업 후 최종목표는 취업이라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나 혹은 나중에 도움이 될만한 것들을 최대한 많이 참여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방학은 다양한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다.

그렇기에 학교에서 방학 중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프로그램을 개설한다면 교통편이 불편한 점을 감안하여 학교에서 셔틀이나 기숙사를 사용하게 해준다면 학생들의 참여도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다.

한 개의 프로그램이 아닌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시간표를 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졸업에 필요한 토익 같은 경우 서울에서는 학원비가 2달에 40~50만원 사이이다. 이런 가격은 부담이 되는데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한다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토익뿐만 아니라 영어는 이제 세계공용어가 된 만큼 스피킹도 같이 진행하여 의사소통이 가능한정도의 수준에 접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하면 좋을 것 같다.

취업에 관심있는 학생들을 위한 취업강연이나 직접 현장 방문을 하여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일주일에 한번 정도 몇 주간에 걸쳐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좋겠다. 일주일에 한번이기 때문에 부담도 적을 것 같고 아직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고민도 불식시켜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뷰티케어과 2 김○○ : 취업연계를 위해서 방학동안에 자격증을 딸 수 있게 해줬으면 합니다. 학생들 중에는 비용이 부담되어 학원에 못 다니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 자주는 아니더라도 방학동안 강의실을 열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뷰티케어과는 마네킹 등을 가지고 직접 해보면서 공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귀로 들으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익히면서 연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학동안에 기간을 정해 실습할 수 있도록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기 계발을 위해서 미용 실무의 경력을 쌓기 위하여 용돈도 벌고 실무도 쌓을 수 있는 인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수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학교 수업만으로는 배우지 못했던 현장의 모습들을 방학동안에 한 달 정도씩 인턴으로 나가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턱대고 취업을 나가 아무것도 모른채 오랜기간을 배우는 시간으로 허비할 바에는 차라리 방학 기간에 하나라도 더 배워 경력이 있는 학생으로 취업을 나가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방학기간에 용돈도 벌고 현장을 경험함으로써 실력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호과 허○○ : 현장에 나가있는 선배들의 특강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합니다.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현장의 상황이 와닿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사회생활 팁, 필요한 자격증 등 경험을 통해 얻어진 선배들의 사회생활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배들과의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개발 프로그램으로는 자격증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격증은 이력서를 쓸 때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더 할 수 있는 일이 증명되기 때문에 스펙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자격증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관련 자격증 취득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사선과 이○○ : 각과 특성에 맞춰서 학교에서 기관에다 몇몇 학생들을 내보내면 학교자체에서도 홍보차원에서 좋고 학생들은 실습같이 받아들여 나중에 취업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취업하여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자기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하게 도와주는 단기 프로그램이나 간단한 영어회화를 위한 자기개발 프로그램이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또 자기관리를 위한 운동 프로그램도 생기면 유익하고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서 추천 자료

이경화의 〈저스트 어 모멘트〉



저스트 어 모멘트는 이경화의 성장소설이다. 저스트 어 모멘트는 영어 'just a moment'가 아닌 한국어 발음으로 표기한 제목이며 소설에 나오는 된장찌개 판매하는 음식점 상호명으로 사람들이 빨리 먹고 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게 사장이 지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시은이는 아빠가 운영하시던 학원이 망하여 생계가 어려워지자 '저스트 어 모멘트'라는 식당에서 일하게 된다. 시은이는 고된 식당일에 힘들어하지만 월급날만 기다리며 버텨낸다. 그러나 손에 쥐어진 월급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시은이는 좌절하지만 새로 식당에 들어온 정운에 의해 다시 마음을 다잡고 변화한다.

이 책은 스스로 권리를 찾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스스로 권리를 찾지 않으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것처럼 자신만의 삶이 있다. 또한 자신의 이익이 중요한 요즘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책을 통해 우리대학교 학생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누군가가 권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자신이 지금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 이 책을 읽음으로써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

김도연 기자

퀴 즈

송호신문 7호 퀴즈 정답

1. 100%
2. 13개
3. 국토대장정
4. 간호과, 치위생과
5. 사회복지과
6.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
7. 월계관, 진선미관
8. 정명철 동문
9.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국가직무능력표준

* **정답자**

김수진(1386008), 지선미(1386034), 김보경(1386004), 조아라(1386032), 김성훈(1386007), 공경숙(1464001), 김미나(1585003), 배지애(1585018), 연혜진(1305024), 민소연(임상병리과 1)